

만 60세 이상 고용 기업에 지원금 지급

전주시, 지역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 중소기업인연합회 등과 일자리 창출 위한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

전주시가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장, 김종기 직능경제인단체 전주시회장,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계층의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고자 추진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12만 원(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740명 정도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전주시니어클럽, 전주시원시니어클럽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들의 전문



전주시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해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장, 김종기 직능경제인단체 전주시회장,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시니어인턴십이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이 쌓아온 경력과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민간 합동 들개 포획단 가동

장동 기지제 등 출몰지역 수시 탐문·현장점검

최근 사람에게 버림받은 야생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가족과 반려견,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민간 합동으로 들개 포획에 나섰다.

시는 장동 기지제 등 들개 때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병원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들개 포획단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들개 때의 장동 기지제와 낙수정 군경묘지, 팔복동 공단, 건지산 주변, 도도동, 삼천동 용산마을과 송천동 KCC 스위트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주변에 5~10마리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병원 수의사 3명으로 꾸려진 들개 포획단을 구축해 출몰지역에 대한 수시 탐문과 민원 발생에 따른 즉시 현장점검으로 들개 때들을 포획하기로 했



다. 들개 포획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리고, 진드기와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감염된 들개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받아 즉각적인 포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올해 21마리의 들개를 포획했다. 포획된 곳은 기지제에서 11곳, 건지산 6곳 등이었다. 포획된 들개는 10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 뒤 2개월간 재활수치 훈련을 통해 개인 및 동물보호단체에 분양됐다. /김윤상 기자

책기둥도서관서 주말 아동극 공연 펼쳐진다

전주시, 26일·7월 3일 '어울림 실버 동극단' 과 함께 진행

주말을 맞아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과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책기둥도서관에서 '어울림 실버 동극단' 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6일에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동화인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는 공연이 펼쳐지며, 다음 달 3일에는 인간의 욕심에 관한 전래동화인 '요술 함아리' 공연이 이어진다.

아동극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063-230-1845)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책을 매개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아동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



지난 5월 29일 진행된 인형극 공연 모습.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창단한 '어울림 실버 동극단'은 전주시립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전주시민대학 동화연구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로 구성돼 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돌며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야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업 시작

전주시 야호학교, 다양한 활동 통해 자신의 인생·진로 설계 기회 기대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21일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야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업을 시작했다.

전주시와 여성가족부가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야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방과 후 시간에 분야별 강사와 함께 ▲스스로 디자인하는 여행 ▲목공, 연기, 춤 등 불입집중 프로젝트 ▲자기탐구·마을 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학습멘토링) ▲보충학습 등에 참여하게 되며, 급식과 귀가차량이 무료로 지원된다.

시는 오는 24일 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 달 9일에는 학부모들

과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과 진로를 설계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야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야호학교가 추진하는 전환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며 "그간 경쟁과 서열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인생을 멀리 보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 야호학교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281-6597, 65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5G 속도 세계 최고

영국 오픈시그널 발표... 다운로드 속도 415.6Mbps

전주시가 전 세계에서 5G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조사됐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오픈시그널(OPEN SIGNAL)이 최근 발표한 '5G Global Top 10 : Cities'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415.6Mbps로 나타났다.

전주에 이어 대만의 신주 시(Hsinchu City)가 360.1Mbps로 2위, 시아디아라비아의 리야드(Riyadh)가 317.3Mbps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가 285.4Mbps, 일본 도쿄(Tokyo)가 277.5Mbps, 호주 멜버른(Melbourne)이 257.4Mbps, 스위스 취리히(Zurich)가 245.1Mbps,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이 194.0Mbps,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가 188.8Mbps, 캐나다 캘거리(Calgary) 184.1Mbps 순이었다.

전주는 수도인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대도시가 아니면서도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별 5G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한국이 361.0Mbps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309.9Mbps), 아랍에미리트(269.0Mbps), 호주(239.6Mbps), 일본(231.5Mbps) 등의 순이었다.

오픈시그널은 "전주 사용자들은 우리가 분석한 어떤 도시들보다도 빠른 5G 다운로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415.6Mbps로 한국 평균(361.0Mbps)보다 15% 빠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